



기술연구소 통한 독자적 기술력 개발 매진

세계 시장 경쟁력 갖추기 위한 투자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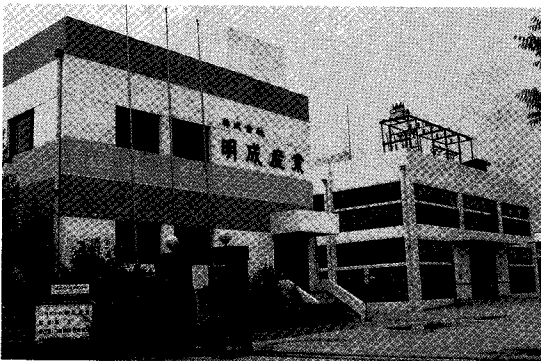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전작의 모방을 통해 그 장단점을 파악,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좀더 발전된 새로운 또 하나의 ‘有’를 창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 다가서기 전, 이 말을 미덕삼아 모방의 한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발전된 ‘有’의 창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가늠케 한다.

포장산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잖은 부분에서 일본의 선진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실정을 우리의 한계고 현실이라며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세계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온 (주)명성산업은 새 천년을 맞이할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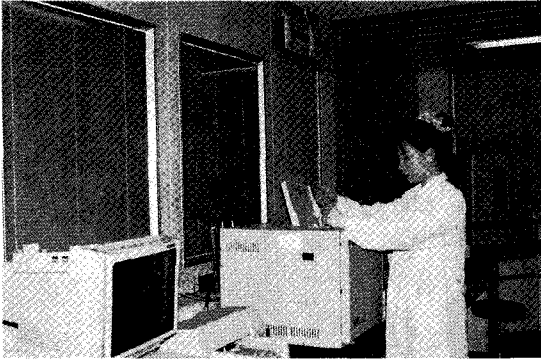
에 여념이 없는 지금, 앞으로 보이는 미래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은 두루 인정받고 있다.

1982년 8월 경기도 부천에서 그라비아 잉크를 생산하며 시작된 (주)명성산업의 역사는 18여년 동안 꾸준한 발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시간들로 되새겨진다. 현재 (주)명성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제 1공장에서 그라비아 잉크를, 제 2공장에서 플렉소 잉크, UV 잉크 및 레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 2공장과 함께 위치한 기술연구소는 최고를 자부하는 (주)명성산업의 기술과 품질을 책임지고 있다.

‘고객감동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상의 기술만을 추구하는



▲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주)명성산업 제1공장(좌측)과 기술연구소가 위치한 제2공장(우측) 전경



▲ (주)명성산업 기술연구소 실험실 내부

(주)명성산업 기술연구소는 IMF 체제 하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해 왔고, 현재 전 종업원의 25%에 달하는 연구인원을 보유하고 동시에 국내업계 중 최고의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명성산업 기술연구소 김형건 부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잉크업계는 자료구비 체계나 기술력 개발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지만, 우리 명성산업이 잉크업계는 물론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앞서 개발하겠다는 일념으로 신기술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라며 기술연구소의 역할을 설명했다.

설립 초기부터 그라비아 잉크를 생산, 그 기반을 다진 (주)명성산업은 지난 96년부터 플렉소잉크와 UV 잉크, 그리고 수지와 접착제를 자체 개발해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라비아 포장물은 다양한 피인쇄체와 후가공이 특징인 분야로 이러한 다양성은 적용되는 잉크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관리나 물류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주)명성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소지나 가공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쇄물의 잔류용

제를 극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각 거래선에 시험 중이거나 일부 적용 중에 있다. 또한 VOC 규제 강화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성그라비아 잉크를 개발하기 위해 다각도로 실험 중에 있기도 하다. 수성그라비아 잉크는 현재 일본에서 개발한 상태인데 신정렬 대표이사는 일본의 경우 기계, 제판, 필름, 잉크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예를 들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성그라비아 잉크의 필요성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흐름입니다. 당장 개발을 하려면 수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일본이 가진 독자적인 노하우와 첨가제까지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명성산업에서 곧 수성용 잉크를 입수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말로 좀 더 긴 호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OPP, PET, Nylon, AI 등의 분야에 대해 수성용 잉크가 극히 제한된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을 기계 투자비용 부담과 30~40%에 육박하는 저생산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만큼 현실적이고 급박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에 있어 환경친화성만이 그 잣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나 안정성 등 환경친화성만큼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음을 인지해야 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신 사장은 당장 닦친 환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선부른 도입보다는 꾸준한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 앞으로 5 내지 6년 내에 국내



순수기술로 수성그라비아 잉크의 개발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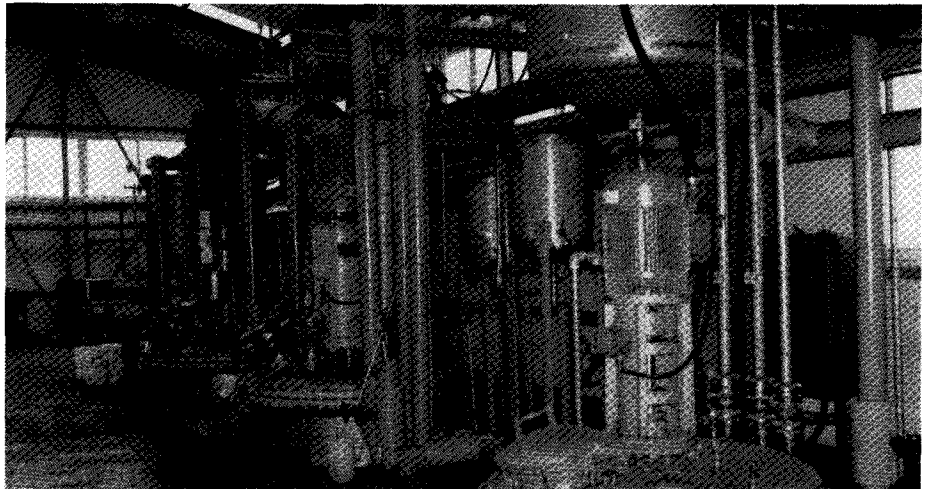
한편, 인쇄물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국내 시장에서 골판지 박스 외에는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플렉소 인쇄의 경우 선진미국 시장에서 급속도로 발전되어 많은 인쇄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춰 국내에서도 VOC 규제문제로 인해 소량다품종 그라비아 인쇄물에 대해 플렉소 인쇄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명성산업은 현재 필름용 수성플렉소 잉크의 개발을 진행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주)명성산업은 환경친화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장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UV 잉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제품 중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CD용 UV 잉크를 개발해 국내에 공급 중이며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 CD용 UV 잉크는 전 세계적으로 15개업체 정도가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명성산업을 비롯한 2개업체

만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 (주)명성산업은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보다는 무한가능성을 가진 중국과 대만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함과 동시에 호주, 캐나다 등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이다.

(주)명성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또 한가지 개발품인 우레탄 수지는 NON-TOLUENE TYPE URETHANE 잉크에 사용되는데, 자체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일부 업체에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이 우레탄 타입의 수지는 저취이기 때문에 작업환경과 기후에 따라 틀루엔 검출량이 차이가 나는 일반 비닐타입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차별점을 갖는데 단 15~20%로 고가인 가격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또 한가지 (주)명성산업의 생산품인 라미네이팅 접착제는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생산품목을 수출과 연결하고 있다.

국내 잉크업체의 발전과 나아가 포장업체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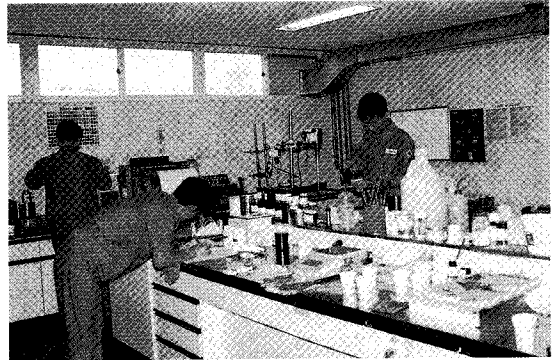
▶ (주)명성산업 제 2 공장의 플렉소 잉크 생산설비

전을 위해 항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매진하고 있는 (주)명성산업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문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경력사원 재교육에도 일말의 소홀함이 없는데, 각 직급에 따라 직무관련 통신교육, 팀별 자체 세미나 개최, 어학관련 교육 등 외부 위탁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과 정보의 입수 및 교환이 어려운 국내 실정을 감안, 적극적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앞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연간 5~6회 정도의 해외전시회 참관과 국내 포장관련 전시회 참관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먼 미래의 (주)명성산업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항상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게으름이 없는 (주)명성산업이 업계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종합경영정보 시스템은 (주)명성산업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 MIS 시스템은 판매·자재 및 제품생산, 인사 등의 모든 기본 정보를 DATA BASE를 구축하여 각 부문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 전산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과 업무처리의 정확성, 신속성을 기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신속·정확성에 도움을 주므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지난 1996년 7월부터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 1년 6개월 후인 98년 초에 완성됐다.

MIS를 설치함으로써 전사적인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경영활동과 부문간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 (주)명성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철저한 샘플링작업을 거친다.

연결하여 모든 업무에 대해 원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력 및 정보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앞선 투자의 실이익을 거두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정책이나 소비자 성향을 보면 산업의 현황이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슈가 되는 당면과제에만 급급해 주먹구구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라는 신 사장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해 요구되고 있는 수성그라비아 잉크나 플렉소잉크의 경우도 이대로라면 무리하게 교체하게 될 공산이 크데 그렇게 되면 과다한 설비투자과 무리한 기술수입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은 유저층에서 먼저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잉크 업계 역시 개발을 추진 중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신 사장은 더이상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당당히 경쟁해 가장 앞에 설 (주)명성산업의 미래를 자신했다. ☐

윤지은 기자